

방과 후 놀이체육 확대로 초등저학년 성장 지원

초1~2 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 '경기-아이 신나 프로젝트' 가동



도교육청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2023학년도에는 시범운영, 2024학년도부터 도내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해 왔다. 2026학년도 우리 교육청만의 브랜드화 전략은 도내 학생·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체육 프로그램 선호도가 24.1%로 가장 높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맞춤형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뉴스포츠, 방송댄스, 전래 놀이 등 놀이·체육으로 구성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입학 초기 1학년 학생들의 협동 중심 활동을 통해 학교 적응과 건강한 교우관계 형성도 돋는다. 아울러 학부모 선호도를 반영해 사교육 부담은 줄이고 공교육 만족도는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아이 신나 프로젝트'를 통해 초등저학년 학생들이 신나는 놀이·체육으로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고,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송민수 기자

용인특례시, 석성산 숲길 정비사업 마무리



급경사지 등 이용이 불편한 구간을 개선했다.

시는 시민 이용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노후 보행매트를 철거하고, 급경사지 구간의 목재계단과 안전로프, 이정표, 안내판을 정비해 숲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경사가 급하고 토사 유실 우려가 있는 구간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대표 명산인 석성산 숲길을 정비해 시민이 일상에서 산림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생활권 산림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산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난임기술 횟수 소진 여성에 추가 지원

이천시가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시는 난임기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난임기술 횟수 추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가운데 난임기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총 25회)를 모두 사용한 여성이다.

시는 건강보험 지원 종료 이후에도 시술을 이어가야 하는 난임 부부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은 연간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

화성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화성시는 다음 달 5일부터 2월 27일 까지 '2026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내년도 보상금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화성시 군

시술 유형별로는 신선배아 시술의 경우 1회당 최대 200만원, 동결배아 시술과 인공수정은 1회당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시에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시술이 가능한 건강 상태임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술비 청구 단계에서는 시술확인서, 지원결정통지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전하는 정책"이라며 "난임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 환경을 만들 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모바일 및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식을 작성해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NS티워(경기대로 1044) 3층, 양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2025년도와 달리 동부출장소 접수처가 NS티워로 이전돼 운영된다.

보상금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2025년도 화성특례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31,190명을 대상으로 약 71억 원이 지급됐다.

경기도,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 개발 본격화...

경기도의회,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 동의안 의결

연면적 약 14만5천㎡ 규모로, 업무·주거·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



광교테크노밸리(광교TV) 내 바이오 부지에 바이오산업(職)·주거(住)·생활(樂) 기능이 복합된 바이오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6월 경기도가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현물 출자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19 일원 약 2만5천㎡ 규모 부지로, 장기간 유 휴 상태였던 도유재산인 옛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 예정지다. 준주거지

여인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16층, 연면적 약 14만 5천㎡ 규모의 업무·주거·근린생활시설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광교TV 및 인근 바이오·헬스기업·연구기관 종사자와 청년 창업가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해 인재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업무·연

구·주거·생활이 한 공간에서 이어지는 바이오 특화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경기바이오센터 등 인근 기관과 연계한 스타트업 육성 및 기술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광교 글로벌 바이오 허브'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주진동의안 처

리는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 구상이 구체적인 사업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6월 GH 현물출자 동의 이후 이번 신규투자 동의로 광교 바이오 부지 개발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바이오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 육성, 주거 공급을 함께 추진해 광교TV를 경기도 글로벌 바이오 허브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장애인도 편리한 군포시 무인민원발급기, 10개소 전면 교체

군포시는 장애인 등 민원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10개소를 장애인 편의 기능이 적용된 최신 기기로 전면 교체했다.

이번에 도입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과 고령자, 저시력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작부 높이를 1.2m 이하로 낮추고 발판 공간을 확보해 휠체어 이용자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시각·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해 음성안내, 접자 라벨, 장애인 전용 키패드, 이어폰 소켓, 촉각·접자 모니터 등을 통해 발급 과정과 증명서 내용을 음성·접자로 안내받을 수 있고, 화면 확대와 명도 대비 강화, 대형 화면을 적용해 노인·저시력자의 가독성을 높였다.

이번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용된 인증 제품으로 교체 설치된 곳은 △원광대 산본병원 △자생병원 △군포시청 △군포2동 주민센터 △이마트 산본점 △송정금강1차관리소 △산본역 △군포역 △금정역 △수리산역으로, 이번 교체로 장애인·고령자·저시력자 등 이동·접근이 어려운 시민도 스스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행정서비스 이용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4시간 가까운 곳에서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대면창구 대기시간이 줄고, 민원 만족도와 행정신뢰도가 함께 향상될 전망이다.

시는 난임기술 지원 횟수를 확장해 지원 대상자를 확장하고, 지원 기관과 협력해 지원 내용을 확장하는 등 지원 확장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난임기술 지원 횟수를 확장해 지원 대상자를 확장하고, 지원 기관과 협력해 지원 내용을 확장하는 등 지원 확장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난임기술 지원 횟수를 확장해 지원 대상자를 확장하고, 지원 기관과 협력해 지원 내용을 확장하는 등 지원 확장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장애인 편의기능을 명확히 표기해 더 많은 시민이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성남시, 'AI 챔피언' 배출로 인공지능 행정 혁신 가속화

4차산업국 소속 주무관 3명, 인공지능 실무 역량 인증 획득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인공지능(AI)을 공공 행정에 접목해 실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AI 챔피언' 3명을 배출하며 디지털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챔피언'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공공분야 인공지능 전문가 20명 양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공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정책의 핵심 제도다.

정부는 2030년까지 행정·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약 2% 수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공직 내부 실무형 교육과 자격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인증을 취득한 직원은 4차 산업국 소속 주무관 3명이다. AI반도체과 박성재 주무관과 기업혁신과 윤강혁 주무관은 각각 9월과 10월 과정에 참여해 행정 업무 효율화와 서비스 기획·개선 역량을 평가하는 '그린' 인증을 취득했다.

특히 AI반도체과 사진우 주무관은 9월 과정에서 '그린'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11월 과정에서 파이썬(Python)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기반으로 한 고난도 트래인 '블루' 인증까지 연이어 획득하며 한 단계 높은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 역량을 입증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바쁜 업무 여건 속에서도 교육과 인증 과정에 성실

히 참여해 성과를 거둔 직원들의 노력이 시정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 확산과 행정 혁신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안양시,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안양시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은 내년부터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감면 받는다.

안양시는 지난 19일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개정 조례안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개정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안양지역에 근무하는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가 운영하는 테니스장·수영장·배드민턴장·탁구장 등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하사 이하의 군인만 일부 시설(수영장·빙상장) 이용 시 감면을 받았다.

안양시는 국가 안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직군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단순한 할인 확대가 아니라 해당 직군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공식 예우 대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국가 안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예우하고 복지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남한강출렁다리 방문객

200만명 돌파..."콘텐츠 확장"

여주남한강출렁다리가 29일 누적 방문객 2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5월 1일 개통 이후 45일 만에 100만 명에 이어 200만 명을 돌파한 출렁다리는 연중 꾸준한 방문 흐름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방문형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200만 번째 방문객에게는 여주쌀 20kg, 출렁다리 레고 등 출렁다리 굿즈가 기념 선물로 전달됐다.

행운의 주인공은 충북 음성에 거주하는 60대 박용관씨로, 29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거주 중인 누나 박정숙씨와 매형 마쓰시다 데쓰오 씨와 함께 출렁다리를 찾았다.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 관광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남한강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확장, 체류형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남한강 출렁다리를 거점으로 야간 경관 콘텐츠 강화와 문화·공연 연계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여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시흥시, '경기 기후안심 그늘' 11

역여원 확보...공공 RE100 실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